

현대기아차 美 RV시장 ‘우뚛’ ... 역대 최다 판매

〈레저용 차량〉

올들어 48만4381대 팔려 작년보다 2만여대 늘어

내년 신형 투산·스포티지 판매 본격화 땀 더 탄력

현대기아차가 올해 미국에서 역대 가장 많은 레저용 차량(RV) 판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들어 11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SUV(스포츠투윌리티차량)와 미니밴을 합한 RV를 총 48만4381대 판매했다.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RV 전체 판매량 46만561대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RV 판매는 지난 2008년 23만여대에 머물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1년 처음 40만대를 넘어섰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50만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차종별로 보면 올 11월 누계 판매 기준으로 기아차 쏘울이 13만4974대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어 쉐니코(10만8616대), 쏘렌토(10만3377대), 투산(5만5280대),

스포티지(4만7695대), 카니발(3만4439대) 순이었다. 특히 쏘울을 제외한 5개 차종의 11월 누계 판매가 모두 지난해 전체 판매량을 이미 뛰어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선보인 신형 카니발은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판매 중 RV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등 판매된 차량 10대 중 4대가 대당 판매단가가 높은 고수익 RV 차종이라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 같은 현대기아차의 RV 차종 판매 증가는 최근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RV 차량 판매 확대 추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1월까지 미국 자동차 시장 전체 판매가 5.4% 증가한 가운데 승용차 판매는 2.1% 감소한 반면 RV 차량 판매는 11.8% 증가해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특히 최근 단행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저유가 기조가 내년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픽업트럭과 SUV처럼 연비는 다소 떨어지지만 힘이 좋고 공간활용성이 좋은 RV 판매가 미국 시장에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게다가 현대차가 최근 판매를 시작한 신형 투산과 기아차가 내년에 선보이는 신형 스포

티지가 내년에 판매를 본격화하면 현대기아차의 RV 판매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현대기아차는 기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RV 판매 증가로 향후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내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수혜가 기대되며 고수익 차종 판매가 예상되는 미국이 내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단가가 높은 RV 판매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뜻”이라며 “특히 내년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신차인 ‘G90’(한국명 EQ900)과 ‘G80’ 등이 새롭게 출시되므로 브랜드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제네시스 EQ900 “잘 나가네”

계약접수 한달만에 1만5천대 판매 넘을 듯

현대차가 지난해 론칭한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최상급 모델 EQ900이 계약접수 한달만에 1만5천대 판매 고지를 넘어설 전망이다.

20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23일 사전 계약접수에 들어간 EQ900은 영업일 기준 12일 만인 이달 8일 1만대 계약을 돌파했다. 이는 2013년 11월 출시된 2세대 제네시스와 비교하면 닷새 가량 빠른 것이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출범으로 ‘G80’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2세대 제네시스는 영업일 기준 17일이 되어야 1만대 계약을 달성했다.

현대차는 “EQ900이 하루 795대(2세대 제네시스는 579대)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며 “이 추세라면 성탄절을 전후해 1만5000대 고지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가 EQ900 구매자를 분석한 결과 종전 모델인 에쿠스 고객에 비해 평균 연령이 2.2세 젊어진 55.1세로 나타났다. 고객 유형은 에쿠스의 경우 법인이 77%, 개인이 23%였으나 EQ900 구매자 중 개인 비중이 34%로 11% 포인트 늘어났다.

현대차는 EQ900의 신규 고객으로 유입되는 수입자 보유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데 고무되었다.

에쿠스 구매자 중 수입자를 보유한 고객의 비중은 13%였으나 EQ900의 경우 20%까지 증가한 것이다.

현대차는 또 서울 강남의 현대모터스튜디오

오에 있는 EQ900 프라이빗 쇼룸을 찾은 고객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EQ900에 대한 만족도는 신기술, 내장, 외장 순으로 높았다고 전했다.

EQ900은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과 스마트 자세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EQ900의 경쟁 브랜드를 묻는 질문에는 고객의 53%가 메르세데스-벤츠를 꼽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달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을 선포한 이후 EQ900 론칭 때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온라인에서 긍정적 평가가 75%로 나타났다”며 “내년에 EQ900이 해외 시장에 출시되면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게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5년 SK엔카 중고차 베스트셀링 모델

(조사기간: 2015년 1월1일 ~ 12월13일)

□ 국산

순위	브랜드	모델
1	현대	그랜저HG
2	현대	YF소나타
3	기아	올 뉴 모닝
4	현대	아반떼 MD
5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6	기아	K5
7	쉐보레	스파크
8	현대	그랜저TG
9	현대	아반떼 HD
10	현대	제네시스

올 베스트셀링 중고차

그랜저HG·BMW 뉴5시리즈

올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국산차는 현대차 그랜저HG, 수입차는 BMW 뉴 5시리즈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최대 자동차 오픈마켓인 SK엔카닷컴은 자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중고차 매물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SK엔카닷컴은 “두 모델 모두 중고차 시장에서 경쟁 모델 대비 주행 성능이 뛰어나고 신차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며 “두 모델은 연식이 지나도 수요가 꾸준해 스테디셀링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국산 중고차 중 경차의 약진이 돋보였다. 중위권을 유지하던 기아차 올 뉴 모닝이 3위로 올라섰고 쉐보레 스파크도 7위를 차지했다. 수입 중고차 중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모델이 순위를 지킨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의 뉴 E-클래스가 지난해 대비 한 계단 상승해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가장 많이 팔린 차량 색상은

벨로스터 짙은 회색, 레이 순백색

자동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차량의 색깔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색깔은 어떤 것일까.

현대차그룹 공식블로그에 따르면 무려 10종류의 선택지가 있어 ‘컬러’ 하면 떠오르는 현대기아차의 대표 차종 ‘벨로스터’와 ‘레이’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사랑받는 컬러는 각각 ‘짙은 회색’과 ‘순백색’이었다.

우선 현대차의 벨로스터(1.6 T-GDI 터보 기준)는 썬플라워, 블루스 프린터(무광), 영건(무광), 에스티카퍼(무광), 벨로스터 레드, 다즐링 블루, 커피빈, 미스티 베이지, 스톰 트루퍼, 팬텀블랙 등 10개 색상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색상 이름도 해당 컬러를 추정해볼 수 있을 정도로만 특이하게 붙여져 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벨로스터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선택 받은 색깔은 ‘짙은 회색’ 계열의 영건(무광)으로 26%를 차지했다. 다음은 흰색 스톰트루퍼(24%), 섯노반 빛의 썬플라워(12%) 순이었다. 파스텔톤부터 원색까지 다양한 색깔이 매력인 기아차의 레이 역시 아쿠아민트, 순백색, 은빛실버, 티타늄실버, 시그널 레드, 체리핑크, 미드나잇 블랙, 엘리스블루, 셀레스티얼 블루, 밀키 베이지 등 총 10가지 색상을 갖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레이를 구매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색깔은 다름아닌 순백색(29%)이었다. 다음은 밀키 베이지(24%), 아쿠아민트(12%) 순이었다.

벨로스터와 레이의 현대기아차 차종 중 가장 개성이 넘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색상을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일반 차량들은 흰색, 회색, 검정색 등 무채색 계열 컬러의 선택 비율이 80%에 육박하지만 개성을 강조한 벨로스터와 레이의 유채 컬러의 선택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굿 디자인 어워드’ 석권



금호타이어는 ‘2015 한국 굿 디자인 어워드’와 ‘2015 북미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각각 2개씩 총 4개 제품이 굿 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16일 발표한 ‘2015 한국 굿 디자인’에서 생활·운송기기 부문의 2개 제품이 우수상품으로 선정됐다. 자가보합 타이어인 ‘실란트 타이어(Sealant Tire)’가 우수상(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사계절용 타이어 ‘솔루스(SOLUS) HA31’이 본상(우수디자인상품)을 받았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5일 발표한 ‘2015 북미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는 고성능 슈퍼카에 최적화된 S-UHP 타이어 ‘엑스타 PS91’과 트럭·버스용 타이어 ‘KRA50’이 본상을 수상했다.

올해 65번째를 맞은 북미 굿 디자인 어워드는 유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 연구센터와 시카고 아테나에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이 세롭고 뛰어난 디자인 제품을 선정하는 디자인상이다.

정택균 연구기술본부 전무는 “금호타이어는 제품 품질은 물론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펜션·문화복합시설 최적!

-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펜션,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3억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

2016년도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시작 하십시오!

대표 : 최선규

H.010-3605-5000